

소아에서의 흉부외상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김성완·조준웅·허동명·전상훈·장봉현·이종태·김규태·서강석

최근 각종 사고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아 연령군에서 불의의 사고가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본원 흉부외과에 입원치료한 15세 이하의 흉부외상 환자 60명을 임상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아가 46명, 여아가 14명으로 남아에서 월등히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9세였다.

사고 원인별로는 둔상이 50례, 관통상이 10례로 둔상이 많았으며, 전체 환자의 52%에서 교통사고가 원인이었다. 흉부외상중 늑골골절이 26례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중부 늑골골절이 가장 많았다. 동반외상은 정형외과적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두부손상, 복부장기 손상 등이 있었다.

평균 재원 일수는 20.6일이었고, 중환자실 입실례는 19례이었으며 평균 중환자실 입실기간은 11일이었다.

폐쇄식흉강삽관술 단독으로 치료한 예가 30례로 가장 많았고, 개흉수술을 시행한 예는 10례였다. 슬후 합병증은 무기폐, 폐렴 등이 있었고, 여러 장기 손상을 동반한 1례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